

돌풍의 임채빈 “이번에도 종진이형 이길 것”

경륜 '투톱' 우승 경쟁 전망 지배적 임채빈, 수도권-충청권과 유대 UP 정종진과 리턴매치 자신감 드러내 경륜팬들 벌써부터 승부 예측 후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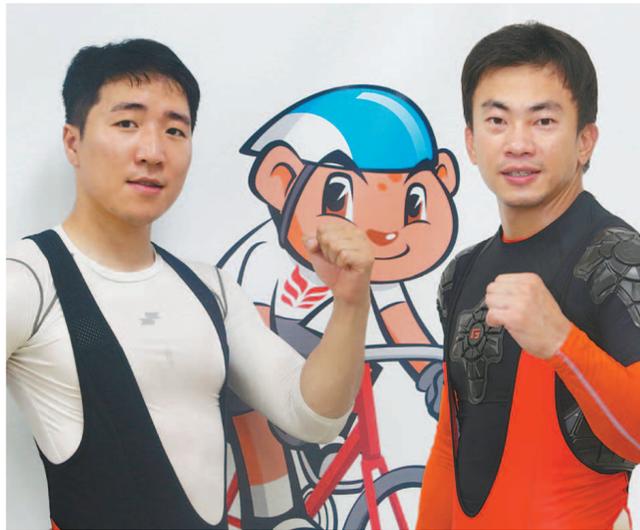
'경륜 개장 27주년 기념 대상경륜'이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 스피돔에서 열린다.

8월 특선급 3개 경주로 실시한 '온라인 발매(스피드 온) 론칭 기념 특별대상경륜'과 달리 이번에는 특선급 6개 경주로 규모를 키웠다. 금요일 예선, 토요일 준결승에 이어 일요일 결승을 치른다.

최근 특선급은 그동안 2진급으로 평가받던 김관희, 김희준, 류재열, 정정교, 전원규가 황인혁, 정하늘, 임채빈, 신은섭, 정종진 등 기존 강자를 꺾는 파란을 자주 일으키면서 상황평준화 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상경륜은 이런 특선급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륜의 투톱이라 할 수 있는 임채빈(25기)과 정종진(20기)의 맞대결 승자에게 트로피가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회날짜가 다가올수록 많은 경륜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임채빈일지, 아니면 정종진이 설욕에 성공할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임채빈이 등장하기 전까지 특선급은 정종진을 중심으로 두텁게 형성된 수도



8월 첫 격돌에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경륜 개장 27주년 기념 대상경륜'에서 맞대결이 기대되는 임채빈(왼쪽)과 정종진. 맞대결을 두고 팬과 경륜 전문가의 예측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등 관심이 뜨겁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권-충청권 연합에 경상권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다. 어쩌다 이번이 생겨도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정종진은 그랑프리 4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임채빈 “친해졌지만 승부는 승부”

하지만 돌풍의 신인 임채빈이 슈퍼특선급 황인혁, 성낙승, 정하늘, 신은섭을 차례로 꺾으면서 특선급 분위기는 급변

했다. 임채빈의 차원이 다른 선행을 경험한 수도권-충청권 강자들은 그를 인정하면서 마크에 주력했고, 임채빈도 이들과 자주 타협하며 유대관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임채빈과 정종진이 첫 맞대결을 펼친 8월 대상경륜 결승에는 수도권-충청권 선수들이 5명이나 있었으나 누구도 정종진을 따를 수 없는 선수가 없었다. 정종진의 친구 황인혁, 인근지역 후배 정

하늘은 선두 유도권 퇴피와 동시에 번갈아서 기습적으로 치고 나갔고, 정종진 마크로 두 번이나 그랑프리 준우승을 한 서울체고 선배 신은섭은 오히려 타종시점에서 임채빈 뒤에 붙어 정종진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임채빈은 최근 예상지 경륜박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시합을 하면서 수도권, 충청권 형들과 많이 친해졌다”며 “특히 (정)종진이 형과 19일, 20일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해 지금 양양에서 같이 합숙훈련을 해 안 친할 수가 없다. 여기서 계속 훈련을 하다가 시합에 맞춰 입소도 같이 할 예정이다”고 근황을 소개했다.

하지만 임채빈은 “그래도 친분은 친분이요, 승부는 승부다. 절대 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결승 대기표가 어떻게 찌어질지 모르겠으나 종진이 형 앞에선 뒤든 상관없이 최대한 힘을 쓰면서 후회 없는 플레이를 펼치겠다”고 승부욕을 보였다.

박진수 경륜박사 팀장은 “동서울팀, 세종팀에서 고루 결승진출자가 나올 경우 임채빈과 정종진은 8월 첫 맞대결처럼 서로를 우군이자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우승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전지점, 천안지점, 부산(본장, 광복지점, 서면지점), 창원(본장, 김해지점)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발매인 스피드 온에서도 회원가입을 하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등으로 즐길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올시즌 경정 첫 대상경주 쿠리하라배 20일 스타트

37회차까지 상위 12명 출전...김종민 현재 선두



쿠리하라 고이치로

드디어 2021년 들어 첫 경정 대상경주가 열린다. 원래 경정 시즌이 개막하면 스포츠월드배(4월), 경정 여왕전(5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8월), 스포츠경향배(9월), 쿠리하라배(10월) 등이 잇따라 열리고 마지막으로 '경정의 꽃'으로 불리는 12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가 화려하게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 정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대상경주가 줄줄이 취소됐다. 이런 우려국결 끝에 38회 차에 이르러서야 첫 대상경주인 쿠리하라배가 열리게 됐다.

쿠리하라배는 한국 경정 초창기에 선수 교육부터 경주 운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기초를 닦은 쿠리하라 고이치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대회다. 일본에서 경정 선수로 31년간 활약한 쿠리하라는 2001년 8월 경정훈련원 교관으로 부임해 1기부터 3기 선수들에게 자신의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했다. 사비로 모터와 보트를 국내로 들여와 교육하는 등 한국 경정이 짧은 시간에 자리잡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20일과 21일 열리는 쿠리하라배는 대상경주 중 가장 상금이 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예선을 겸하고 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12명이 수요일 예선에 참가해 이중 6명이 목요일 결승에 나선다.

출전자적은 1회 차부터 38회차 개최일 전까지 성적상 위자다. 올 시즌 강자인 김민천과 심상철이 플라잉으로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최종 12명 엔트리에 들어가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36회차까지 성적을 종합하면 김종민이 선두이며 조성인과 어선규, 김민길, 이용세, 김민준, 김현철, 박정아, 김응선, 한성근, 이미나, 류석현 등이 12명 안에 든다. 그 외 김완석, 김인해, 김지현, 손재민, 배해민 등도 상황에 따라 출전자격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김재범 기자

세계 최초 경정 경주용 전기모터보트 개발 착수

충전시스템·새 선체 등 동시 개발 배기가스 제로·연료비 절감 기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원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세계 최초로 경정 경주용 소형 전기모터보트 개발에 착수했다.

그동안 전기 추진체를 이용한 모터보트가 출시된 적은 있으나 실제 경주에 투입돼 운영한 사례는 아직 없다. 경정 경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도 경주용 전기모터보트 개발은 전무하다.

전기 모터보트 개발 사업은 고출력, 고내구성, 고방수성을 겸비한 전기추진기(모터)

개발, 교체형 고안전성 배터리팩 및 충전시스템 개발, 탄소섬유 등 복합 신소재를 활용한 새 선체 개발 등을 진행한다.

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전기모터보트 개발을 통해 배기가스 제로와 탄소중립 실현으로 연료비 절감(연간 약 20억 원)과 소음감소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상생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002년 경정 개장 이후 장비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08년부터 모터(2기동 32마력)의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저소음 감음형 모터보트도 추가로 자체개발해 현재 경주에 활용하고 있다.



2020년 모터

공단 스포츠단 의료지원 협약 체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7일 미사리경정공원에서 공단 스포츠단과 강동경희하원의원이 의료지원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동경희하원은 공단 산하의 펜싱, 사이클, 마라톤, 여자축구, 카누, 다이빙, 장애인스키 등 7개 스포츠팀 선수들이 부상, 질병 등으로 치료에 필요한 경우 약침, 침약 등에 대한 할인 지원에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맹규 경륜경정전진화본부장은 “앞으로 선수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신속한 회복을 통해 좋은 성적을 올릴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협약은 양 기관의 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sports2i

스포츠투아이에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11월)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게임	연속	타율	방어율	홈런	득점	실점	도루	실책		
1	K T	128	71	50	7	0.587	-	1승	0.266	3.70	0.633	657	527	98	103	100
2	L G	125	66	52	7	0.559	3.5	1승	0.255	3.68	0.597	570	505	103	77	81
3	삼성	130	68	54	8	0.557	3.5	1패	0.270	4.40	0.607	659	609	122	108	82
4	두산	126	62	59	5	0.512	9.0	1패	0.270	4.29	0.517	658	582	101	66	81
5	N C	125	59	59	7	0.500	10.5	2승	0.263	4.50	0.525	630	604	156	91	99
6	키움	128	61	61	6	0.500	10.5	2승	0.256	4.32	0.603	637	632	83	86	115
7	SSG	31	60	60	11	0.500	0.5	2승	0.261	4.92	0.576	677	680	167	94	91
8	롯데	130	60	65	5	0.480	13.0	2패	0.278	5.39	0.464	672	732	97	58	77
9	K I A	126	50	68	8	0.424	19.5	3승	0.247	5.02	0.467	502	669	59	62	95
10	한화	133	47	76	10	0.382	25.0	4패	0.240	4.68	0.410	556	678	77	101	105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특점	OPS
1	강백호	K T	0.356	126	452	161	16	70	96	10	94	75	17	0.324	1.004
2	이정후	키움	0.353	107	402	142	5	69	65	7	66	31	3	0.325	0.936
3	전준우	롯데	0.340	130	489	169	7	82	87	6	56	61	0	0.426	0.864
4	박건우	두산	0.336	108	393	132	4	72	50	12	52	59	1	0.347	0.860
5	양희진	N C	0.329	122	417	137	27	73	100	2	69	53	3	0.396	1.006
6	홍창기	L G	0.325	125	458	149	4	85	48	21	105	79	1	0.340	0.860
7	페르난데스	두산	0.317	123	470	149	14	65	75	0	62	31	1	0.297	0.845
8	안치홍	롯데	0.312	105	382	119	9	54	76	3	52	55	6	0.389	0.855
9	황재균	K T	0.305	101	387	118	10	68	49	11	45	80	14	0.314	0.799
10	손아섭	롯데	0.305	125	489	149	1	78	49	11	60	61	5	0.312	0.743
11	구자욱	삼성	0.304	125	490	149	20	99	82	27	51	87	3	0.294	0.876
12	김성민	K I A	0.303	118	458	139	5	52	60	0	56	34	6	0.307	0.779
13	김혜성	키움	0.303	128	498	151	3	85	61	40	56	87	1	0.302	0.742
14	강민호	삼성	0.300	112	373	112	16	50	62	0	42	46	7	0.250	0.848
15	박해민	삼성	0.299	114	405	121	5	75	50	33	68	75	1	0.324	0.788
16	정훈	한화	0.297	122	454	135	13	67	73	8	66	87	1	0.241	0.829
17	박성환	SSG	0.297	122	57	06	4	49	35	12	46	0	1	0.276	0.769
18	최원준	K I A	0.292	125	517	151	4	74	39	31	63	58	7	0.274	0.744
19	김현수	L G	0.291	121	440	128	16	62	79	3	67	37	0	0.254	0.834
20	피델라	삼성	0.291	126	506	147	26	95	91	9	58	76	0	0.294	0.862

※특점 타율: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민투 시타율 OPS: 홈루율 + 장타율

●평군자책점

순위	선수	팀	방어율	경기	이닝	실점	자책	패	세	안타	홈런	삼진	4사	피타율	WHIP	
1	미란다	두산	2.30	25	156.1	44	40	13	5	0	121	11	204	54	0.211	1.11
2	백정현	삼성	2.60	24	138.2	48	40	13	4	0	126	13	94	51	0.245	1.26
3	요키시	키움	2.67	27	158.2	58	47	14	7	0	143	11	114	44	0.242	1.15
4	루신시	N C	2.72	26	158.2	59	48	14	8	0	131	12	149	54	0.219	1.12
5	최원준	두산	2.85	25	142.1	51	45	12	2	0	133	14	99	44	0.244	1.18
6	고영범	K T	2.87	23	150.1	53	48	11	5	0	126	8	108	38	0.229	1.00
7	원태인	삼성	2.88	24	147.0	52	47	13	6	0	131	10	122	52	0.242	1.22
8	엘리	L G	2.97	26	154.2	53	51	12	6	0	136	11	124	65	0.252	1.23
9	류개년	삼성	3.05	26	153.2	60	52	14	5	0	151	10	144	53	0.252	1.32
10	페르난데스	K T	3.41	30	168.0	74	64	11	9	0	158	10	153	75	0.244	1.34
11	박세웅	롯데	3.96	25	147.2	67	65	9	8	0	132	20	115	50	0.235	1.17
12	카멜레	한화	4.12	28	153.0	82	70	5	12	0	137	15	162	82	0.237	1.33
13	김민우	한화	4.12	26	142.0	67	65	12	9	0	119	15	117	77	0.228	1.33
14	스트레일리	롯데	4.25	27	144.0	78	68	9	11	0	145	11	137	69	0.264	1.44
15	신민혁	N C	4.54	27	127.0	68	64	8	6	0	142	15	92	43	0.280	1.42
16	최원태	키움	4.64	25	128.0	82	66	8	10	0	152	10	79	55	0.296	1.57
17	임기영	K I A	4.87	25	135.0	75	73	5	8	0	134	13	113	51	0.257	1.30
18	프랄로	롯데	5.52	31	133.2	89	82	9	7	0	134	18	105	88	0.261	1.51

※피타율: 안타 ÷ 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안타+볼넷) ÷ 이닝

프로축구 (12월)

순위	팀	승점	승	패	무	득점	실점	선수	팀	득점
1	울산	64	18	4						